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취여선사 '幽心'

선사의 법명은 취여(取如) 호는 괄허(括虛), 이름은 여도선(余道先)으로, 조선 숙종 46년(1720)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경서(經書)를 들으면 곧 외우므로 사람들이 감탄하여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하였다. 13세에 사불산 대승사에 주석하고 계신 능파 조사(凌波祖師)를 찾아가 삭발염의(削髮染衣:스님이 되어 머리 깎고 검은 옷을 입음)하였다.

구족계는 진곡 선사에게서 받았다. 선사는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었다. 이에 노석덕(老碩德)들께서 더불어 감탄하기를 "우리들은 범행(梵行:修行)에 있어 이 사미(沙彌)에게 부끄럽다"고 하였다. 선사는 교학에 몰두하니 신통한 깨달음이 출군(出群:만사람 가운데 최고로 뛰어남)하였다. 또한 경서를 가지고 학문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수미산을 이룰 것"

수학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앞서 보겠다고 열중하였으나 앞서지 못했다.

수많은 스님들이 선사를 불법의 큰 인물로 기대했다. 유력(遊歷: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행하였다는 뜻)을 마치고, 환암장로(幻庵長老)의 선지를 심지(心旨)하고 환응 선사의 의발(衣鉢)을 전수 받았다. 이후 납자로 영남의 여러 고찰을 다병(茶甁) 하나와 지팡이 하나로 돌아다니면서 정진하였다.

수년을 용맹정진하며 다니시다가 폐퇴(廢頹)한 사찰을 일으키고, 기강이 허물어진 선원을 진작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찰이 상주 남장사와 사불산 운봉사(지금의 금룡사). 운봉사에 주석하여 가행정진하고 계실 때 심산의 깊은 모습을 보고 확철대오하였다.

유심(幽心:그윽한 마음)

山中人方在空谷(산중인방재공곡)
坐蒲團方女蘿衣(좌포단방여라의)
翠丈巖環而爲屛(취장환이위병)
白雲飛而爲幢(백운비이위유)
朝寥葉方落松(조건엽방락송)
暮採秀方燁燁芝(모채수방엽엽지)
石泉兮冷冷(석천혜랭냉)
我齒方自潔(아치방자결)
杳然方與世相違(묘연방여세상위)
風埃方不到丈室(풍준방불도장실)

산 속 사람이 빈 골짜기에 사노라니,
부들 방석에 앉아도 비단옷일세.
푸른색 높은 산 둘러 병풍이요,
흰구름 날아 휘장이 되네.
아침에 채취한 잎은 낙락송인데,
저녁에 뜯은 잎은 향초로다.
바위 틈에서 솟은 물은 차고도 찬데,
내 이를 닦으니 스스로 맑아졌다.
아득한 자연 속세는 더욱 멀고,
저세상 회오리 바람도 내 방에는 못 드네.

선사의 오송(悟頌)은 담연(澹然)하기가 물 속의 달과 같다. 또한 선사의 깨침은 담화(曇花)이다. 담화(曇花:구름꽃, 꽃구름, 하늘의 해와 달을 비유한 것, 즉 우담화(優曇花:상상 속의 식물, 3천년 만에 한번씩 꽃이 핀다는 꽃)이다. 우담화는 하늘에 떠오른 태양을 뜻하며, 또한 사랑과 음덕의 주체를 뜻한다(로서 우리 중생들에게 임천(林泉:수풀과 샘물)이 되었다.

선사는 선 수행의 핵심을 생활선에 두었다. "대체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고대광실(高臺廣室)에 백관(百官)을 거느리며 만종(萬鍾)의 녹(祿)을 먹을지라도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밥 한 그릇과 나물 한 접시로도 만족하고 새끼를 둘러서 나뭇짐을 질지라도 만족할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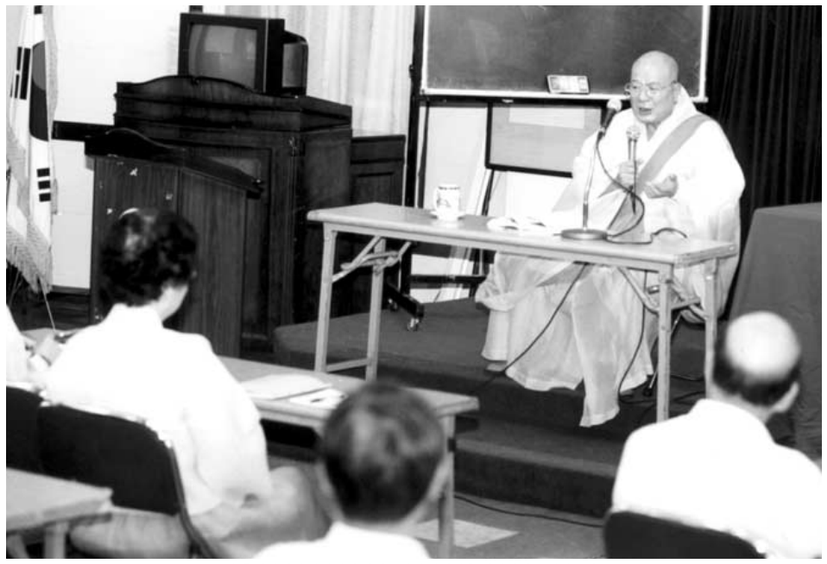
사람은 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함에도 항상 부족하고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안다면 부족한데도 항상 만족한 것이다. 또한 항상 만족을 아는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비웃지 않는 까닭에 항상 만족하다. 그러므로 항상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수미산을 이룰 것이다." 선사가 설한 생활선의 요지다. 선사께서는 정조(正祖) 13년(1789)에 운봉사 양진암(養眞庵)에서 가부합장(跏趺合掌)하시고 입적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혜 경 스 님

서울 무설정사 주석

"法나누고 情나누면 보살의 길"



◇홍사단에서 자비행회 회원들에게 법화경을 강의하시는 혜경스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오류'는, 사물 인식에 있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더없이 좋은 표현이다. 특히, 중생의 입장에서 '진리'라는 코끼리에 접근할 때의 막막함은 장님의 답답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럴 경우, 반쯤은 억하심정에서 드는 생각이 있다. 만약 장님이 자신이 만진 한 부분을 전체라고 우기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실체에 다가선 게 아닌가 하고 목청을 높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런 생각은 입밖을 나서지 못한다. 비슷한 건 틀린 것이라는 옳은 말씀에 절로 입을 닫게 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코끼리 만지는 장님 심정으로 혜경 스님을 뵈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법화경> 하면 혜경 스님을 통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지라, 내심 '대승경전 중의 대승경전'이라는 법화의 묘리(妙理) 한 자락이라도 엿볼 요량으로.

인사 올리고 방안을 둘러보니 뜻밖에도(스님은 세수 예순 아홉이시다) 컴퓨터 모니터에선 다음과 같은 글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행(諸行)은 무상(無常)이라." 문득 궁금증이 발동한다. 무상한 제행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좀더 매만질 데가 있어 보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뜻밖이었다. <금강경>이라니. 스님의 수행과 교화에 있어 소의하는 경전은 <법화경>이 아니던가.

"<법화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으뜸가는 경전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신봉하는 일부 사람들이 '법화행자는 다른 모든 경전을 필요치 않는다'든가 '법화행자는 성불(成佛)만이 목적이므로 해탈이 필요치 않다'고 말들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사상인 <반야경>의 공(空)사상을 바르게 알아야만 법화행자의 길인 보살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해탈없이 어떻게 성불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 어렴풋하게나마 불교 경전의 총섭이라는 <법화경>의 성격을 이해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스님의 자상한 설명이 이어진다.

"<금강경>도 <법화경>도 해탈법문이지만 약간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금강경>은 공 도리에 투철합니다. 내(我)가 실재한다는 헛된 견해를 철저하게 부숴 버림으로써 참나(眞我)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허무감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성불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금강경>이 부정을 통한 긍정이라면 <법화경>은 절대 긍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화의 긍정이 금강의 부정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금강경>의 부정을 전제한 긍정이지 <금강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금강경>이 보살이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면 <법화경>은 보살행 즉 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알음알이 경전공부

아상만 키우는 일

체득하고 실천하라"

스님께서는 참으로 법화의 정신에 투철하셨다. 올 2월부터 그 동안 맡아 오셨던 법화종 유지종단 이사장 자리도 내 놓으셨다고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일러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합니다. 평등지와 차별지를 모두 아우른 지혜라는 말이지요.

<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도 욕망이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게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 하지 않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하느니라.'

일체의 집착을 버리라 했다고 '대비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식이 보리(菩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차별과 차별을 다 넘어서야만이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다시 말해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경지는 머리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말씀이시다.

"선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점에 <법화경>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성문(聲聞) 연각(緣覺)도 능히 부처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소승을 기사회생시킨 경전이 바로 <법화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법화경>의 절대 우위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무리의 대표적인 예가 '남묘호랑게교' 예요. <나무묘법연화경>을 절대화시킨 일본 불교의 한 종파가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한 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건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神)으로 부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 종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무나 '왈칵(스님께서는 돈오(頓悟)를 왈칵 깨달음으로 표현하셨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수행이에요. 깨달음의 과정이 곧 돈오라는 얘깁니다."

스님께서는 유난히 수행의 과정과 실천을 강조하신다. 행과 일체를 이루는 앎이 아니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이시다.

"체득(體得)되지 않은 앎은 대단히 위험해요. 체득된 앎만이 사리분별을 넘어설

혜경스님은?

불경 번역 '남다른 열정'



1933년 전남 여수에서 나신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신 후 불법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이시다. 법화불교대학 학장과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무설정사에 주석하신다.

스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불경을 번역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셨다. 번역 · 저술 목록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 다수의 경전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펴내셨다.

스님의 저술은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인문 ·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해박함과, 활달하면서도 정교한 논리로 불경의 난해함을 극복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특징적인 면은 학문적 접근과 신앙적 접근 중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문에 집착하는 창백한 태도를 경계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맹목적 신심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학문적 진지함이 지나쳐 종교적 엄숙함을 거세시키지도 않고, 종교성을 앞세워 합리적인 이해를 가로막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혜경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수유리의 '무설정사'는 법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부처님법 듣는 사람 누구라도 언젠가 부처 이룰 수 있어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 무엇'이라고 단정하여 개념화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신비주의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경전을 읽더라도 몸으로 읽고,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觀)이란 것도 그래요. 단순히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보라는 것이고, 행을 통해 앎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현재 쓰고 있는 불가의 말 중에서 잘못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보살'이예요. 관세음이나 문수, 지장 등 그야말로 대승 불자의 궁극에 도달한 존재에나 합당한 말이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쓰임이지요. 하지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인양 비난할 건 아닙니다. 참다운 보살이 되라는 '격려사'로 생각하면 그리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닦음과 실천이 결코 둘이 아니예요. 위로 보리를 구한다(上求菩提)면서 어찌 아래로 중생을 구제(下化衆生)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러 깨달음 그 자체에 집착하여 하화중생은 염두에도 없는 수행자가 있어요. 안 될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 같은 중생도 하화중생할 수 있단 말인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지 않은가.

"하화중생하면 절로 상구보리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처가 영원하면 불성을 지닌 나도 영원하다. 불자(佛子)인 나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에 투철해야겠지요. 그런 믿음 위의 하화중생은 곧 상구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되는 바가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의 언저리에도 못 가 본 형편에 누구를 구제한단 말인가.

"앉아 있는 것만을 수행의 능사로 여기지 말고, 용맹정진을 참선에 한정하지 마세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普施) 하나만 제대로 행해도 보살도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운 재물을 나누다 보면 절로 인욕(忍辱)도 되고 지계(持戒)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사는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법을 나누는 사람이면 당연히 재물도 나누게 되겠지요. 쌓을수록 고민덩어리가 커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재물을 나누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德)은 베푸는 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화경>의 핵심인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을 보세요. '삼승(三乘) 즉 성문 · 연각 · 보살의 근기가 저마다 달라서 수행과 증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일불승(一佛乘)에 귀착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점이 <법화경>을 수승함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근기에 따라서 세 가지 정토가 있습니다. 하근기에는 가고자 하는 극락정토가 있겠고, 중근기에는 이 세상에 실현하려는 극락 정토가 있을 것이며, 상근기에는 이 세상이 곧 극락인데 달리 어디서 극락을 찾을 것인가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극락이라 하는 입장이 바로 <법화경>의 대긍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승이 다 일불승(一佛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승은 삼승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곧 극락이요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의심치 말고,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법의 실천이며 보살도를 완성하는 가장 쉽고도 올바른 길입니다."

"부처님 신격화 불교근본종지 욕되게 끊임없는 수행 중요"

초저녁부터 시작된 스님과의 만남은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계속됐다. 아쉽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자 반가운 소식 하나가 귀를 연다.

다음 날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신다는 것이다. 더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붑기를 기약했다.

다음 날, 흥사단 강당. 간단한 법회의식이 끝난 다음 스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교재는 스님께서 번역하신 <우리말법화경>. 강의 내용은 '화성유품(化城喩品)'.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항상 성불의 길을 설해 왔으므로, 만일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성불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 않아 현재 2승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후에 기필코 그 가르침을 자각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꼭 새기세요.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불자(佛子)임을 잊지 마시고 널리 법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세요.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성불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스스로를 건지는 길입니다. 조금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불부도(佛不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모두가 부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열심히들 정진합시다."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자비행회(회장 어수정 · 71)'의 회원들로, 13년 전부터 약 200명이 모여 불경 공부와 함께 청소년 장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30대 아주머니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말씀 한 말씀을 그야말로 몸으로 듣는 듯했다. 취재를 마치며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앞으로도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칠 계획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잡고 대중을 상대로 한 강의보다는 무릎맞춤을 하고 한 마디 한 마디 온 정성을 들여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실 것이라 한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불굴스님(하)



80년대 중반 불굴 스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올린 백일 기도의 가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심이 나게 만든다. 그 해 겨울 안거를 지내기 위해 칠불암을 찾았다. 그러나 그 겨울에는 스님들이 많이 몰려 늦게 온 불굴 스님은 입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그때 선원에서 공부하지 못할 바에는 기도를 올리자고 마음먹었다. 선방 대신 기도하는 조건으로 동안거를 지내게 된 셈이다. 당시 스님은 허리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쑥뜸을 뜨기고 하고 심지어는 똥물까지 마셔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좀처럼 낫지 않았다. 칠불암에서의 백일 기도는 허리병이 있는 환자로서는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한 것이다. 꼼짝없이 선 채로 해야 하는 기도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불굴 스님은 하루에 네 번, 선방에 앉은 스님들과 똑같이 기도로써 정진하였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향 일이 가까워오자 스님은 21일 용맹정진을 각오하게 된다. 다시 말해 21일 동안 잠 자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저녁밥 먹고 기도에 들어가면 다음 날 아침까지 꼼짝 않고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까, 그때의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칠불암서 선 채로 백일기도

요즘 하루 12시간이상 염불

절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용맹정진 기도하기를 일 주일 되는 날 새벽, 하얀 수염에 도포자락을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긴 침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침을 불굴 스님의 항문으로 쑥 집어넣더라는 것이다. 뭉클한 느낌이 드는 순간 다시 그 침을 쑥 빼더라는 것이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법당에서 목탁을 치고 있었고 그때야 그 노인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때 침을 맞던 느낌을 말할 때 스님은 삼천 대천 세계가 환히 열리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신다. 아마도 업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적은 그 때부터 일어난다.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리지도 못했는데 스르르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숙여지더란다. 한 마디로 허리병이 다 나아버린 것이었다. 그때 비로소 스님은 부처님 가피와 영험을 확신하게 됐다. 불굴 스님은 업으로 인한 병은 허리로 온다고 믿는 분이다. 이러한 허리병의 치료는 수술로는 불가능하고 기도 가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 때부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 지금까지 천일 기도를 세 번이나 마쳤다. 어떤 절에서는 목탁소리 시끄럽다고 쫓아낸 적도 있었단다. 스님은 기도를 하면서 화두를 챙긴다고 하신다. 물 흐르듯 쉼 없이 기도하시는 스님을 뵈면, 염불삼매와 선정삼매는 결국 같은 힘인 것 같다. 몸이 건강해야 화두가 성성하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업이 맑아야 그 어떤 수행에도 마장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불굴스님이 계시는 가평의 작은 암자는 토굴 같은 절이다. 처음 그곳에 터를 잡고 기도를 할 때는 남의 창고를 빌어 시작하셨단다. 그때 스님은 신문지를 깔고 공양을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없었다. 어느 날 십만 원 짜리 불공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밥상을 마련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다. 지금도 스님의 기도는 여전하다. 하루 12시간 법당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어쩌다 신심이 나면 밤샘까지 하신다. 가끔 스님이 계시는 암자에 들려 스님의 목탁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도 없는 내 삶이 참 부끄럽게 느껴진다.

가평은 불굴 스님이 군대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통신병으로 가평 지역의 산을 누비면서 그 산세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먼



훗날 절을 지으면 꼭 가평에 터를 잡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는데, 지금에야 그 원력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 군대를 가게 된 재미난 일화가 있다. 신체 검사가 나오자 스님은 월남에 가고 싶었단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사지(死地)에 간다는데 남의 일처럼 무표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곤끈하게 이어진 부모의 정을 그 일을 통해 끊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불굴스님은 마치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 비구 같다. 그 누구도 가벼이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논쟁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강원 시절의 도반들은 놀란다고 한다. 독선과 괴각질로 유명했던 불굴 스님이었으니 그럴 만도하겠다.

번뇌가 많으면 깨달음도 크다고 했던가. 위기를 바꾸면 기회이듯 수행자는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불굴 스님은 수행자의 방황과 갈등을 공부로 잘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굴 스님은 늘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